

대구주보

사순 제3주일

2020. 03. 15. (가해) 제2205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4,14)



『우물가에서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구에르치노, 1640~1641년, 마드리드 티센-보르네미스사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호사유피(虎死留皮) 인사유명(人死留名)



성주본당 주임 | 이기태 베드로 신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虎死留皮, 人死留名)’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기고 살 것인가요?

세상에는 ‘내가 낸데!’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려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업적만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눈에 보이는 업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이고,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 ...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잘 가꾸었으니 이제 우리들이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씨를 뿌리며 살려는 사람보다는 언제나 자신이 드러나는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 즉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뿌리신 씨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는 인간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이러야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알아주는 업적을 남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뿌려 놓은 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언제나 겸손한 마음 자세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충실하게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필문**

살기 위해 사랑하세요

- 치유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 : “사랑”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한 가지 질문으로 이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어떤 남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을까요? 결혼하고 사랑이 생겼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혼기가 차서 옆 마을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이 붙고 겨울에 눈 쌓이듯 서서히 사랑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보다 나은 생존환경을 마련해 주고 종족의 유지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사랑’의 형태가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보다는 같은 방향과 목표를 향한 동료애, 우정 같은 사랑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낭만적이며 뜨겁고 불타 오르는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람 간의 역동적인 감정 만이 아니라 동료애, 우정, 연대, 일치, 희생, 봉사 등등 모든 인간 행위의 원리가 되는 범위와 깊이를 가졌습니다. 학자들은 사랑을 에로스(Eros)-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구, 필리아(Philia)-우정, 노모스(Nomos)-신의 뜻에 대한 순종,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에 따르는 것, 아가페(Agape)-인간을 창조한 신적 사랑으로 구분하여 생각합니다.(Irving Singer, 『사랑의 본질』 1~3권)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삶의 원리, 원동력인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실재화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은 어떤 뜻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생존(生存)은 살아있음, 생명이 있음입니다. 결국 사랑은 생명과 직결되는 말입니다. 하느님께 생명을 받아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오시어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사랑은 이 세상의 생존만이 아닌 영원한 생존, 영원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 살고자 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치유에 있어 사랑은 최고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1코린 13,8)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구 병원사목부 차장 | 이종민 마태오 신부

+ 찬미 예수님.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찬미 예수님’이라고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병원사목부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미사를 하고 환자 방문을 하고 병자성사를 드리는 것을 일상의 일로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지난 설을 막 지났을 때부터 병원에서 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들부터 시작해 병원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곧이어 계획되어 있던 여러 행사와 모임이 연기되고 취소가 되더니, 마침내 교구 전체가 미사를 중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더니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이 퍼지고 공포와 두려움, 원망과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덮쳐왔습니다. TV를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들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병자성사 요청이 있어도 병원 출입을 할 수 없으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는 저의 일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일상이 바뀐 사람은 저 뿐만은 아니겠지요.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료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마스크를 전달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며 매번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더욱 소외받을 위험에 처한 분들을 찾아내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로 발송되어 오는 택배 상자에 ‘힘내세요’라는 메모글로 격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며, 기도으로써 함께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당장 끝낼 수는 없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함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이 어려움을 사순시기 애덕 실천의 기회로 바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과 평일 미사가 다시 봉헌되고, 모든 교우들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로운 시기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평안**

김세박 암브로시오 (1761~1828년)



‘군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세박(金世博) 암브로시오는 1761년 한양의 역관 집에서 태어나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의 관명(冠名)은 ‘언우’였고, 1786년경 유배지에서 사망한 김범우 토마스는 그의 먼 친척이었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암브로시오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성격이 포악한 아내는 그의 신앙생활을 심하게 방해하였고, 천주교를 욕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암브로시오는 가족과 이별한 뒤,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교리를 가르쳐 주거나 교회 서적을 필사하면서 살아 나갔다. 그러다가 조선에 입국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암브로시오는 가끔 산중으로 들어가 살면서 신심을 함양하는 데 열중하곤 하였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겨 하였고, 식생활을 절제하는 데 힘썼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1827년의 정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암브로시오는 수색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는 직접 안동 관아로 가서 천주교 신자임을 자백하였다. 이내 그는 안동 관장 앞으로 끌려가 교회 서적과 동료들이 있는 곳을 밀고하라는 추궁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김세박 암브로시오는 대구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이재행 안드레아, 김사건 안드레아, 박사의 안드레아 등을 만나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다. 때때로 그는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혹독한 형벌을 받았으나 백절불굴의 인내심으로 이를 참아냈다. 이후 감사는 그의 죄목을 다음과 같이 적어 형조로 올려보냈다.

“김세박은 자수해 와서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는데, 죽기를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결국 암브로시오는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하고 처형될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음식을 전폐하기로 작정하고 철저히 대재(大齋)를 지켰다. 자신이 먹는 음식이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함께있던 동료들이 똑같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암브로시오는 ‘그것은 자살행위가 된다.’고 말하면서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암브로시오는 형벌과 대재로 쇠약해진 탓에 끝까지 옥중 생활을 이겨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828년 12월 3일(음력 10월 27일)에 옥사하고 말았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67세였다. 그가 사망하자 교우들이 모두 이를 애석해하였고, 그의 거룩한 생애와 영광스러운 종말을 공경하였다고 한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탈출 17,3-7	제 2 독 서	로마 5,1-2,5-8	복 음	요한 4,5-42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구의 지원 활동



- 2월 25일 교구에서는 대구시에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한티피 정의집'을 제공하였습니다.
- 2월 26일 교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구·경북에 각각 1억원 씩 총 2억원을 전달하였습니다.
- 3월 2일 교구 사회복지회를 통해 대구 8개소, 경북 12개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700만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 3월 9일 교구 후원계좌를 통해 모이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성금 3억 원을 의료진 격려와 의료 장비 구입에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과 교구 산하 의료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각각 1억 원씩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는 성금과는 별도로 교구 지원금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 이밖에 성금과 물품들은 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알아보고 방역 및 구호물품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교구민 여러분께서는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성환(빅토리오) 신부
1982년 3월 19일
- 박도식(도미니코) 신부
2003년 3월 20일
- 여동선(빅토리오) 신부
1944년 3월 20일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행사 | 모임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미사·안수)

일시: 3월은 쉽니다.

4.15(수) 13:00~16:00

장소: 삼덕성당 / 지도: 강 요셉 신부
문의: 422-6691

교육 | 모집

2020년 1학기 신학성경 수강생 모집

성사론, 신론, 윤리신학, 성경입문,
공관사도, 모세오경, 그리스어,
바오로서간, 가톨릭서간 등
개강: 4.6(일)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주말

379차 ME주말: 3.27(금) 19:00~29(일)

380차 ME주말: 4.24(금) 19:00~2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10개국 20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태극권,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음악원 제21기 모집

개강: 4.4(토)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SPC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일시: 4.7(화) 19:00~21:00

4.9(목) 10:00~12:00(총 8주 16시간)

내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내면 여정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에니어그램

신청: 254-2664 / (010)3228-3330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3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대상: 15~30세 남자 / (02)828-36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채용 | 안내

가나 강좌 안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월 셋째 주일에

실시되던 가나 강좌를 일시적으로 중단

합니다.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최: 교구 가정복음화국

문의: 250-3077, 3114

AD 대학생 센터 안내

경산지역 대학생들의 활동과 신앙생활

지원(카페AD, 스터디룸, 강좌 개설 등)

대학생 미사: 주일 17:00

장소: 압량대학생거점성당

문의: (010)5202-5885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임 (아 네 스)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원 연세대 외과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 · **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메타워 4,5,6층

☎ 053)626-8881~5

공장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달성피부과
Since 1985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제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사순 제3주일 주일미사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집전



이번 주 주일미사는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시청 천주교대구대교구 유튜브,
가톨릭신문 유튜브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지금, 주교님 집전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매일미사 방송시간

TV 월~토 06:00, 12:00, 18:00, 21:20 | 주일 06:00, 09:00, 12:00, 18:00, 21:00

라디오 매일 05:00, 18:05 | 유튜브 'TV매일미사' 검색

매일 05:00 이후 cpb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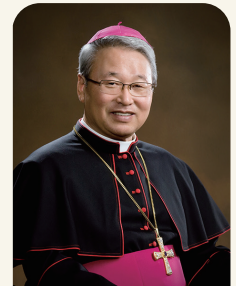
3월 15일(일)
정신철 주교 집전
(인천교구장)



3월 16일(월)
권혁주 주교 집전
(안동교구장)



3월 17일(화)
유수일 주교 집전
(군중교구장)



3월 20일(금)
김운회 주교 집전
(춘천교구장)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안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안중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SM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